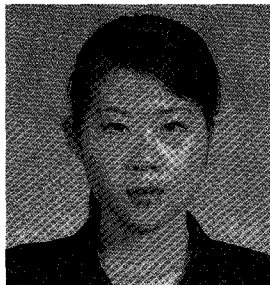


이론적 내용 실생산공정 접목 계기

다양한 분야별 공정 경험기회

윤 해 경 / 신성대학 산업포장과 2학년



▶ 윤해경
신성대학 산업포장과 2학년

대학에서 공부한 이론만을 가지고 졸업 후 업계에 취업했을 경우 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당혹스러울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습은 포장실무를 습득할 수 있어 학교에서 미처 접하지 못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고, 업체에서 생활하면서 팀워크의 중요성과 단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개인적으로 미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므로 포장업체에서 학생들에게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포장업계의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실습기간동안 나는 (사)한국포장협회에서 생활하면서 업계의 전반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각 포장재별 생산 현장에도 가보았는데 일반 생산업체에 실습을 한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였겠지만, 학교에서 배웠던 이론적인 내용들을 직접 보고 체화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실습을 통해 얻은 공통적인 소득이라고 생각된다.

한국포장협회에서 실습을 하며 느낀 일반 생산업체와의 차이점은 협회가 가진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을 두루 견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실습기간동안 분야별로 규모가 큰 업체들을 견학할 수 있었는데 제조공정이나 구체적인 시장규모, 생산기술, 체계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실습기간 중 처음 방문하게 된 곳은 태평양중합산업(주)으로 규모도 크고 다품종 유리용기를 생산하는 업체라 유리생산공정을 두루 둘러보며 학교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생산공정과 접목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유리병의 원료는 규소, 소다회, 석회석과 부원료로 구성되며 용해공정에서 1,600℃의 고온에서 용해해 성형공정을 통해 외형을 만들고 서냉, 표면처리, 인쇄, 검사공정을 거쳐 유리병이 만들어졌다. 그 중 성형은 블로우 & 블로우 방식과 프레스 & 블로우 방식의 공정이 있으며, 불산처

리를 하여 표면을 뿌영게 처리하는 공정도 실제로 볼 수 있었다. 맥주병 등 일반 유색병들과는 달리 화장품병은 플린트병이 많으므로 파유리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삼보판지공업(주)은 원지를 골판지로 가공하는 업체로 이중양면골판지나 양면골판지 등을 주로 생산하는데 라이너지와 골심지를 골정상에 풀을 균일하게 접착, 도포한 후 건조, 스텐터하여 인쇄, 슬롯터한 후 접합하여 상자를 제조하는 공정을 볼 수 있었는데 견학 후 판지는 습기에 따라 강도의 차가 많으므로 생산공정에서 습기의 차단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것과 대부분의 인력이 외국인이었다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주)홍아기연은 블리스터 포장기를 제작하는 업체로 의약품 포장기계가 주생산품목이며 한국 전자공업은 계량기와 진공포장기를 제작하는 업체로써 회장님께서 직접 사후관리와 신입사원 채용 등에 관한 내용과 한자와 외국어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다. 여든의 연세에 5개국어에 능통하시고 여전히 손수 비즈니스를 하시는 열정에 또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한 대한페인트잉크(주)는 페인트·잉크업계의 선두업체라는 자부심이 강한 업체로 제조공정상 잉크의 수지와 안료의 배합이 중요하며 분산과정, 조정과정, 검사, 포장 등의 잉크 생산공정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선두업체라는 자부심에 걸맞게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자료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자적 전산화시스템은 21세기를 준비하고 있는 포장업체가 꼭 갖추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된다.

견학한 기업들은 대부분 국제 경쟁력의 일환과 사내 표준화 작업을 목적으로 ISO인증제도를 획득했거나 준비 또는 관심을 보이는 곳이 많았

다. 그리고 자사의 경영노하우와 제품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았다.

이번 실습기간동안 다양한 분야의 업체들을 견학하며 제조업체에서 그 분야의 생산공정을 자세히 아는 것도 좋지만 포장협회에서의 실습을 통해 여러 업체를 견학하며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우리 포장업계도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유럽이나 중국, 가까운 일본 등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었고, 이를 위해 간부급 뿐만 아니라 일반 사원들까지도 모두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을 보며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포장업계의 적극적인 모습은 앞으로 포장업계에 종사하고 싶은 나의 소망에 든든함을 더해 주었다.

실습 전 유리, 제지, 제관, 연포장, 필름, 물류 유통 등 두루 견학하고 싶은 마음이 과한 욕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업체의 휴가와 바쁜 일정으로 예정된 일정마저 무산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았다.

실습을 마치면서, 실습기간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기업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산·학 협력체제가 견고히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고 올해 처음으로 실습생을 맞은 한국포장협회에서 실습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실습기간을 효과적이고 알차게 보낼 수 있다면 제조업체보다 더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실습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실습기간동안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공재홍 상무님 이하 협회 직원분들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견학의 기회를 주신 각 업체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